

## 초기 컴패션의 역사

(2004/05/08 월리 에릭슨(Wally Ericson)과 에드 앤더슨(Ed Anderson)의 대화에서 발췌)

컴패션의 초기 시절은 에버렛 스완슨의 개인적인 관리 스타일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에버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동료 신자들을 신뢰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고 사람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경영 방식은 컴패션의 한국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컴패션 사역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1960년대 초, 에버렛 스완슨은 피터 강(Peter Kang)을 고용하여 한국 컴패션 사무소 운영을 맡겼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에버렛이 한국에서 컴패션의 일상적인 업무와 관리에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터는 모든 활동과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전권을 갖게 되었다.

피터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의도가 사업 그 자체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곧 분명해졌다. 한국의 관습은 거래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는 것을 허용했다. 이 기간 동안, 피터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프로젝트로부터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피터는 컴패션의 거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매달 새 은행 계좌를 다시 개설하여 각기 다른 은행에서 새 선물을 받기 시작했다. 한번은 그가 옷과 피아노를 선물로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또한 보육원에 매달 지원금을 보내긴 했지만 그들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에버렛의 조카인 샬리 스완슨(Sally Swanson)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녀는 간호사로서 프로젝트에서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간호사 팀(한국인과 미국인 포함)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컴패션이 사용한 최초의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이었다. 한국 문화의 보수적인 특성 때문에, 여성들은 동반자 없이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샬리가 출장을 다니기 시작하자,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그녀에게 피터가 요구한 리베이트에 대해 알려주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샬리는 에버렛에게 알렸지만 그는 피터의 의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했다.

피터는 몇 년에 걸쳐 한국 사무소를 계속 개발해 나갔고 1960년대에 150~2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 시기 컴패션 모든 후원자의 이름과 주소는 지역 사무소에 보관되었다. 피터는 후원자들과 직접 편지를 주고받으며 추가의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기금을 한국 지사로 직접 보낼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샬리는 다시 에버렛에게 이 관행을 언급했지만 에버렛은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후원자 몇 명이 시카고 지사에 연락했지만, 이 문제에 관심을 끌 만한 충분한 불만거리는 아니었다.

1960년대에 밥 모건(Bob Morgan)은 한국에서 영적인 부분을 돌보는 목사로 고용되었다. 그는 프로젝트들을 방문했고,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보육원을 방문했으며 정기적으로 설교했다. 밥 또한 피터의 권력 남용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에버렛은 이러한 혐의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다.

에버렛은 계속해서 시카고에 머물렀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환멸을 느꼈다. 밥도 샬리도 한국의 모든 프로젝트/보육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 그들 둘 다 컴패션이 180개의 프로젝트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컴패션은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에 성공적으로 광고를 게재하게 되었다. 한국에 살면서 컴패션의 평판에 대해 익히 알고 있던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은 광고에 격분했다. 선교사들은 피터 강의 평판을 알고 있었기에 그 광고들이 한국에서 듣던 컴패션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선교사들은 에버렛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컴패션의 문제들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4년, 많은 압박을 받은 에버렛은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했다. 그는 마침내 피터의 부정직함을 깨닫고 그를 해고했다. 비록 이것이 꼭 필요한 결정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다. 피터 강의 해고가 컴패션이 수년간 쌓아온 나쁜 평판을 돌이키지는 못했다.

에버렛은 무디(Moody) 월간지에 한국 사역을 위한 관리자를 뽑는 광고를 올리기 시작했다. 에드 김볼(Ed Kimball)이 광고에 응답했고 해당 직책에 고용되었다. 그는 200명의 한국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피터 강에게 충성심을 느꼈고 그의 나쁜 관행을 "채택"했다. 그러나 컴패션의 사역이 한국

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이 기간 동안 컴패션은 1맵(MAP)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한국으로 많은 '선물'을 현물 형태로 배송하고 있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을 가져다 시장에 팔고 있다고 여겨졌다. 많은 상품들이 전용되어 판매된 것이다. 컴패션 직원과 원장들 모두 이 관행에 참여했다.

에드는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서울에 있는 두 개의 대형 보육원을 대상으로 기금을 보류하기 시작했다. 그는 컴패션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정도의 '투명성(integrity)'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이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프로젝트를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방문을 통하여 에드는 명단에 오른 어린이들 중 많은 수가 프로젝트에 살고 있지 않거나 심지어 고아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직원들은 에드의 새로운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었다. 오랫동안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었다. 컴패션 직원들과 원장들이 합심하여 일종의 조합을 결성하고 에드에게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서울에 있는 2~3개의 대형 보육원들은 표지판과 포스터를 만들어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행진을 하도록 하면서 에드가 시행하고 있는 변화에 항의했다. 직원들은 에드와 컴패션이 어린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 훔쳤다고 비난했고, 언론에 연락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다. 여러 신문에 시위 사진이 실렸다. 이 시점에서 컴패션 직원들과 프로젝트 원장들에게 부패가 만연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사이 에드는 여러 교회에서 기부한 기금으로 서울에 두 채의 선교사 주택 건축을 돕기 시작했다. 관련 자재들을 컴패션이라는 기관을 통해 수입했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관세나 수입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사실, 컴패션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직원들과 원장들은 에드가 법을 위반했다고 경찰에 알리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 에드는 직원들과 프로젝트 원장들의 표적이 되었다.

---

<sup>1</sup> 맵 인터내셔널(MAP International, MAP): 레이몬드 나이트(Raymond Knighton)이 1954년 미국에서 설립한 기독교 비영리 단체로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보건 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Brunswick)에 본사를 두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MAP\\_International](https://en.wikipedia.org/wiki/MAP_International)).

그 소식을 들은 <sup>2</sup>헨리 하비(Henry Harvey)는 에드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도쿄로 데려가고 고 지시했다. 에드는 한국인 직원을 모두 해고하고 한국에 있는 사무소를 폐쇄한 후 한국을 떠났다.

헨리 하비가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갔을 때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다시 언론을 개입시켰다. 많은 신문들은 헨리 하비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그가 에드 킴볼의 상사였기 때문에 "사기꾼 두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의 상황과 관계는 몇 년 동안 긴장 상태였다. 1968년 3월, <sup>3</sup>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이 고용되어 한국으로 파견되면서 4년 동안 사역을 이끌었다.

월리는 한국으로 간 첫 5개월 동안 모든 컴패션 프로젝트를 방문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180개의 모든 보육원을 방문했고, 800명의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보육원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적은 수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자정과 새벽 4시 사이에 방문이 이루어졌다.

월리는 또한 정부의 아동 복지 부서에 연락하여 관계자들과 만났다. 그는 매주 그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시간과 위원회에 감사를 표했다. 세 명의 공무원이 월리와 함께 일하도록 배정되었다. 은퇴한 판사 메리 리(Mary Lee) 박사와 다른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는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보육원에 대한 정부의 목표를 물었다. 그는 정부와 컴패션이 어린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월리는 그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정부의 미래 방향이 과거처럼 이러한 유형의 보육원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폐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월리는 어떤 보육원을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모든 컴패션 보육원에 대한 등급제를 시작했다. 이러한 등급에 따라 기금은 축소되거나 보류되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접근 방식을 좋아했고, 그것은 컴패션이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동시에 일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면서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1년 후 월리에게 더 이상 조언이 필요

---

<sup>2</sup> 헨리 하비(Henry Harvey): 컴패션의 2대 대표(재임 기간: 1966~1974년)

<sup>3</sup> 월리 에릭슨(Wally Erickson): 컴패션의 3대 대표(재임 기간: 1975-1993년)

하지 않다고 알렸다.

월리는 이 기간 동안 30~40개의 보육원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결국 한국 전역의 총 보육원 수는 100개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에버렛의 소천 후, 미리암(에버렛의 미망인)은 컴패션에 매우 화가 났고 사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국의 직원들과 프로젝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리암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의 프로젝트들을 방문했고 귀빈 대접을 받았다. 원장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과 선물을 주었다. 그녀의 개입은 한국의 상황을 계속해서 "정리"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

이 시점에서, 헨리 하비는 미리암이 컴패션에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미리암은 설립자의 아내였고, 사역의 처음부터 매우 관련이 깊었다. 헨리는 미리암이 다른 영역에서 그녀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컴패션 구호 개발(Compassion Relief and Development)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헨리는 은퇴할 때까지 컴패션 구호 개발의 공식적인 대표였고, 이후 미리암이 대표가 되었다. 헨리가 은퇴한 후, 월리 에릭슨이 컴패션 인터내셔널의 대표가 되었다. 미리암도 컴패션 이사회 일원으로 섬겼지만, 직원으로서 월리에게 보고하는 체계였다. 이러한 보고 체계와 그녀의 이사회 지위는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았다. 월리는 이사회(엘머 올슨, 거스 햄월, 밥 키니)와 만나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지만 인사 이동으로 인해 다시 논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데 동의했다.

3~4년 후, 월리는 상황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회에 통보했고, 그는 미리암이 떠나거나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월리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동의했다. 주말 동안 월리, 에드 김볼(현재 프로그램 책임자)과 데이브 올슨, 짐 플로이드는 그녀의 가구와 파일들을 그녀의 차고 사무소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몇 년에 걸쳐 컴패션의 리더십은 미리암을 직원으로 포함시켜 급여를 받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에버렛의 소천 이후 재정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았고, 그들은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느꼈다. 1975년 이러한 조정은 완료되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윌리와 이사진은 매우 친밀해졌다. 그들은 이 시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책임을 다했다. 1980년대에 컴패션에 새로운 이사들이 추가되었지만, 그들은 컴패션의 초기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컴패션 사역의 초기 시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기금은 오용되었고 한국에서의 컴패션 명성은 부패로 인해 손상되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컴패션의 명성을 재건하는 데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컴패션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사역의 투명성(integrity)을 회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한 이사회도 있었다. 우리 초기 역사의 이 시기는 컴패션의 투명성(integrity)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컴패션 역대 대표 리스트**

- 1952-1965 에버렛 스완슨(Everett Swanson)
- 1966-1974 헨리 하비(Henry Harvey)
- 1975-1993 윌리 에릭슨(Wally Erickson)
- 1993- 웨스 스탠포드(Wess Stafford)